



명작 속에 나타난

죽음의 유형

맹 광 호 (본명 · 이시도로)

〈가톨릭醫大 豫防醫學 助教授〉

뛰어난 문학으로서 세계 최초의 것이라 할 수 있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딧세이》 이래로 오늘날까지 하늘의 별 만큼이나 셀 수 없이 많은 문학작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다

이들 작품의 주인공이 거의 반드시 인간인 점에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들의 나고(生) 죽는 일에 있어 차라리 어떤 가치를 둔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며 어쩌면 작품(특히 소설)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취미 밖의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중의 더러는 「죽는 것」으로서 그 작품의 시말을 대신한 것도 있으려니와 「죽고 사는」 줄거리에 독자의 관심이 끌려 있었던 것도 있었으며 그 「죽음」을 말하고자 하나의 작품을 이루어 놓말 예도 있다. 다소간의 의미를 내포한 「죽음」을 말한 작품을, 죽음이 통상(通商) 비극이듯, 조금은 슬프게 마련이다.

비극을 정의하여 그의 《시학(詩學)》 가운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번민과 공포로써 사람의 정서를 적히 정화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비극은 「단지 프루트」(줄거리)가 제일이고 사상이나 성격은 이차적인 문제라고 한 점에서 여기 다루고자 하는 「죽음」과의 유의한 상관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작품속에서 주인공의 「죽음」이란 그것이 독자의 정서 정화에 그 궁극목적이지 않고는 명작일 수 없었는지 모른다는 당연한 귀결을 두고 그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사조의 근거

도대체 그 유형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세계문학

사상 「죽음」이라는 것이 메인 이슈(main issue)로 종종 나타난 시기가 언제였을까? 「르네상스」 이전 그리스어문학시대에 있어서는 신의 섭리에 따라 모든 인간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던 지극히宿命적인 시대로서 그 작품도 대체로宿命적인 것이어서 신의 의지에 따라 죽고 죽이는 것이 마지막 단계에 영국에 있어서 <셰익스피어>를 정점으로 한 국문학에서 「정체모를 심각한宿命판」에 휩싸인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죽음 같은 어두운 면을 멀리 했었다. 예컨대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북카치오>의 《테카메론》은 완전히 해방되어 날개치는 인간의 명량(明朗)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르네상스」는 기실 그리스어문학의 수입이 아니요. 변형된 로마문학의 계승인 점에서 비극적 국문학을 이 시기에 탄생시켰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후에 오는 프랑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문학의 두가지 타입을 함께 지닌 시대였다는, 그 시대의 복잡성을 얘기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는 그 절대군주체제하의 애국심, 의무, 신앙같은 것으로 일관한 느낌이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불의에 빠진 처가 자살로 숙죄하는 <라시이느>의 《페에들》은 이를 탈피하는 큰 계기를 만들었다.

17세기 영국문학은 「푸리타니즘」으로 일관한다. 《실락원》과 《북락원》의 작가 <밀튼>이 그 정점이랄 수 있는 이 문학사조는 미국에 건너가 19세기에 이르러 꽃피었으며 <호오손>의 《주홍글씨》는 그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주인공 <딤즈테일> 목사의 자학적 「죽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후 18세기에 들어와 과학문명의 발달에 접한 인간의 신에 대한 회의로부터 시작하여 후에 사실주의의 밑거름을 만들어 놓은 여러 작품이 나왔으니 <테포오>의 《로빈슨 크루소》나 <스위프트>의 《갈리버 여행기》등. 경험적이고 풍자적인 작품이 그것들이다.

사상가 <루소>의 시대를 지나 독일의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써 당시 정사의 한 유형으로서 크게 유행하게 했던 것이다.

19세기 시인의 세계였던 낭만주의와 더불어 산업발달의 모순으로 들어난 속의 불합평(不合平)등에 불만을 품은 작가들이 복합개량을 꾀하여 비판적이고 일면 슬픈 얘기를 쓰곤 했으나 이것이 19세기 사실주의 「리얼리즘」의 대두이다. 사실주의의 거장은 <디켄스>이다. 그의 《올리버 트위스트》나 《크리스마스 북스》는 당시 사회에 커다란 개혁을 초래하는데 기여했던 것이다. 《허영의 거리》를 쓴 <삭카페>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사실주의 작가이며 <하아디> 또한 이들과 버금가는 영국의 대소설가이다. 특히 <하아디>의 《테스》는 불행한 농촌 여성의 죽음을 그림으로써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사회의 비참을 나타내 어두운 암흑감을 풍기고 있다. 그의 다른 작품 《왕자들》 또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와 비슷한 작품으로써 양자 모두 어두운 숙명관을 내포하고 있어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감화라고 자칭 타칭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아름답고 죄없는 사람들을 비참한 환경 가운데 죽음을 당하게 하는 줄거리의 이와 비슷한 작품들은 <프로베르>의 《마담 보봐리》나 <스탕달>의 《적과 흑》등 대작가운데서 볼 수 있으며 자기 그 유형을 달리하지만 이것은 신을 잃어버린 인간의 불행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여기서 근대문학의 절망도 퇴폐(頹廢)도 싹뻗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희극》의 발작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이 시대의 대작이다.

<모파상> 또한 이 시대에 속하는 작가로서 병적인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여러 작품 속에 나타내어 어두운 면을 그렸으며 사회의 냉혹과 불합평을 그려낸 <듀마마 피스>의 《춘희》에서 주인공 <마르그리트>의 죽음이 이를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작품이 대체로 주인공

의 죽음을 많이 그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들 작품에 대한 것은 뒤에 설명하기로 한다.

한편 이렇듯한 어두운 면에 대한 독자들의 실증은 곧 다시 나타나서 19세기 말에 한창 낭만주의 문학이 꽃피워졌으며 《보물섬》 《지이킬 박사와 하이드씨》 등의 작자인 영국의 <스티븐슨>이 그 대표적 작가로 꼽힐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 두 차례의 대전을 겪는 동안 수없이 많은 작가들이 각양각색의 작품을 들고 나왔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만큼 이 후로 현대문학은 폭 넓게 또 깊게 널려져 왔다. 철학서에 가까운 각종 작품에서부터 주옥 같은 애정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사를 정찰하고 있거니와 무엇보다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전쟁을 다룬 작품의 출현이다. 결국은 인간이 어느 집단의 의지나 종파적 편견에 지배될 수 없이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개인적 휴머니즘의 절규가 여기저기서 뛰어 나왔던 것이다. 전장에서 「죽음」. 그것은 너무도 많은 인간의 고뇌를 낳았고 또 미해결인 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작품속의 죽음의 유형

1. 운명적 비극

그리스 시대에 쓰여진 대부분의 소설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들의 의지를 따라 움직여가는 인간의 세계를 그린 것들으로써 그 예언에 따라 인간은 죽고 죽이고 한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숙명과 불행과 무의식의 악으로 일관하는 인간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나 《오딧세이》 그리고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프스》 등이 유명한 작품으로 꼽힐 수가 있다.

2. 복수 비극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무엇보다 <세익스피어>의 《햄릿》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사변적(思辯的)이고 내성적이며 관념적인 「인텔리」 <햄릿>는 오직 아버지인 선왕의 복수심에 일생을 불사르고 만다. 애인 <오필리아>의 오빠이자 악독한 계상의 아들인 <레이티스>를 상대로 결투를 벌이고 거기서 그를 죽이고 자기도 독칼에 쓰러지고 마는 비극이 이 줄거리이다. 말하자면 이 소설은 복수를 위해 <햄릿>를 창조해 낸 것이고 그도 죽어 버리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귀결로서 복수를 하고난 <햄릿>로서는 더 이상 할일이 없어진 때문이다.

작품년대로는 훨씬 뒤이지만 <멜빌>의 《백경》에서의 주인공 <에이하브>의 죽음 또한 여기에 속할 수가 있다. 백경 <모비딕>에 대한 단순한 복수심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선장 <에이하브>의 그 죽음은, 그러나 그 상대가 인간이 아닌 점에서 무모한 죽음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을테지만 죽음 자체로만 볼 적엔 전자의 《햄릿》에서와 결코 다를 것이 없는 복수 비극인 것이다.

혹자는 이를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의 패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섬머셋트 모음>은 이를 『멜빌의 어두운 염세 주의와도 일치한다』라고 했을 만큼 선장 <에이하브>의 죽음을 미화하여 어떤 투쟁의 모험을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황은 다소 다르나 <하디>의 《테스》에서 순결한 농촌여성 <테스>의 숙명 가운데도 그녀의 죽음이 복수에 의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재회의 기쁨 속에 단 일주일의 행복을 만족히 생각하면서 자기를 불행하게 한 <알레크>를 죽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테스>를 동정하지 않는 독자는 없다. 죽어가는 <테스>에게는 극히 보잘 것 없는 행복감도 있으려니와 그토록 자신의 불행에 주역이 되어온 <알레크>를 죽인 말할 수 없는 복수의 희열도 있었으리라.

3. 정 사

『...우리들의 잠시 슬픔은 오히려 행복한 것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이 경우 죽음에 대하여 나는 잘 알고 있다. 아니 이런 경우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죽음이 그의 앞에 닥쳐온 순간 그는 죽음을 잊게 된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누구나 죽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레이몽 라디게>가 16세에서 18세 사이에 썼으리라고 생각되는 《육체의 악마》 가운데 나오는 귀절이다. <라디게>가 사소설조로 쓴 이 소설 가운데 주인공은 자기보다 년상의 여인 <마르뜨>와 사랑하고 그녀는 그의 아이를 낳고 그리고 어쩌면 방종과 무위의 전부인 남자의 「에고이즘」에 그녀는 죽어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소설이란 원래 아주 드물게 존재하는 부조(浮彫)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진실하게 보임으로써 독

자의 덜 채워진 진실과 동조를 얻게 되는 것인 만큼 그중에도 인간의 가장 귀한 감정에 대한 노골적이고 진실한 말과 행동은 필연코 적잖은 비극적 연애소설로 하여금 세계 명작의 서열에 서게 하는 것이리라. 대체로 소설 가운데 주인공의 사랑을 죽음으로써 증명이 되곤 했다. 말하자면 정사는 곧 「사랑의 시작」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다만 시대적인 차에 따라 정사에는 각기 몇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함께 죽는 것으로, 자살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으로.....

예컨대 각기 대단한 물의와 함께 당대의 큰 유행을 불러일으켰던 대표적 명작을 들어 보자.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엘》은 함께 죽음으로써 그들의 사랑을 시작한 것과 같다. 격렬한 청춘의 정열에 넘치는 화려한 연애 비극으로 오래 오래 읽히고 있는 이 소설에서 두 사람의 죽음을 애석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이들 중의 누구도 살아 남았기를 바라는 독자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보다 약 200년뒤에 나온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의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다. 젊은 <베르테르>는 <룻테>의 남편 <알베르트>에게로 소년을 달려가게 하여 권총을 빌리도록 한다. <룻테>는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소년에게 준다.

『룻테여, 그대의 손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일이야 말로 내가 원하는 바이다』라고 독백하며 <베르테르>는 그 권총으로 자살하고 만다. 이 연애 소설의 결정판격인 소설이 당시 사회에 크게 퍼져 이런 종류의 자살소동을 많이 빚었던 애기로 남아 있다. 말하자면 자기의 목숨을 끊어 사랑을 고백하고 이를 증명하는 어쩌면 유치할 만큼 진실한 남녀의 사랑은 이미 말한대로 소설이 있으므로 가능하리라는 상식을 뒤엎고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것이다.

같은 연대지만 다소 뒤늦게 나온 <스탕달>의 《적과 흑》은 정사의 유형중에 마지막 애인을 죽이는 것으로써 대표적 연애소설로 꼽히고 있다. 줄거리만으로는 오히려 극히 우발적이고 복수에 찬 청년의 살인 미수와 또 그의 사형으로 끝을 맺지만 그가 정작 부인을 사랑했던 것을 고백하는 그의 독백에서 그는 애인을 죽이는 행위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유리안 소텔>은 출세 직전에 옛 애인이 고 지사의 부인인 <레날>부인의 광연(狂戀)의 절투로 실패하게 되고 부인을 죽이려 권총을 발사했으나 미수에 그치지만 그는 단두대위에서 쓰러진다. 이것은 거꾸로 「레날」부인이, 그녀 또한 애인의 사형에 충격받아 병사(病死)하지만, 애인 <소텔>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그럴듯한 애정을 표시하고 마는 것으로도 된다. 아니 그 쪽이 더 낫다. 어찌됐든 이 소설이야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파멸에, 죽음에 빠지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모순을 실현하여 정사의 한 유형으로 등장한 것이다.

4. 자학적 죽음

여기에 포함시켜 생각할 수 있는 작품가운데는 두가지 타입이 있다. 하나는 제목 그대로 주인공의 심한 자학끝에 죽음을 청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패배자로서의, 자신을 잃음으로서 자기 살해인 것이다. 전자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서 <호오손>의 《주홍글씨》를 들 수 있다. 젊은 목사 <덤즈데일>은 남편이 있는 자기 교구의 여신자와 불의의 정사(情事)에 몸을 버린후 끝없는 죄의식에 몸을 망쳐가며 결국은 단두대 위에 스스로 서는, 어두운 일생을 보내고 만다.

그 반면 <듀마>의 《춘희》나 <라시이느>에 《페에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 그리고 <프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같은 경우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에 그 방편으로써 죽음을 택하는 주인공(때때로 여주인공)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우리에게 오랫동안 깊은 감명을 주어 온 《안나 카레리나》에서 야심가인 남편 <카레닌>에게는 불만스런 생활을 영위하던 <안나>가 정육의 사신 <브론스키>에게 매혹되어 불륜의 길을 걷게 됨으로써 누구나의 상식처럼 그녀는 눈썹인 철길 위에서 슬픈 종말을 마치고, 《춘희》에 나오는 주인공 <마르그리트> 또한 사랑하는 애인 <아르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불행(신병)을 혼자 지고서 순정에 살려고 발버둥치다 죽어가는 것이다. 「보바리즘」이란 유행어까지 만들어낸 《보바리 부인》은 주인공 <엠마>로 하여금 《안나 카레리나》의 <안나>와 같은 운명에 빠지게 함으로서 모든 사람의 동정속에,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불륜의 마지막 대가로서 죽음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되며 <라시이느>의

《페에들》 또한 불의한 사랑에 빠진 부인의 자살을 그려 저으기 저항하며, 어찌지 못하는 자신의 운명을 타하여 자기살해를 하게되는 것들이다.

5. 사상적 죽음(시작으로서의 끝)

현대문학의 특징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작품의 난해성(難解性)과 그 사상적 배경의 내재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문학에 있어 철학의 도입이 이 세대만큼 크게 작용한 때도 없다. 「부조리」, 「불신」, 「고독」, 「선과 악」이 가운데서 「죽음」은 무척 아름다운 「해결」로서 많은 작품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두 작품을 들겠거니와 1933년 <말르로>의 《인간조건》은 주인공 <키요>로 하여금 「가장 강렬한 의의와 가장 위대한 희망」으로 죽음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정사에 있어서 애정의 시작과는 차원이 다른 「시작」을 암시하고 있으며 1942년 <카푸>의 《이방인》에서 주인공 <죄르소>로 하여금 단지 「뜨거운 태양 때문에」 한 아라비아인을 죽이게 하고 사형대위에서 그로하여금 자신하게 하는 의지,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해 주듯하는 모든 사람들의 「무관심」에 그는 패배를 부르고 「모두가 이룩되었음」을 줌으로써 오히려 「죽음으로서 이룩해 놓는」 강한 철학적 주장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육체의 죽음은 무의미하며 정신적 소생을 암시하는 형이상학적 「죽음」이 많은 문학작품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다.

6. 전장에서의 죽음.

두 차례의 대전을 겪는 동안 죽음의 회피를 넘어 전쟁에 대한 인류의 혐오는 어찌지 못한 세계사의 순환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도 컸다.

솔한 개인대 전체의 모순 속에서 발생하는 값없는 죽음 그 죽음에 대한 분노는 아직도 식을 줄 모르지만 언제까지고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모두 개인적 휴머니즘의 옹호에 더욱 강력히 투쟁케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학이 예외일 수는 없다. 아니 어느 의미로 문학의 이에 대한 공헌은 자못 큰 바 있어 정작 무엇 때문에 전쟁을 싫어해야 하는지를 간추려 주었고 또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란 신과 인간의 영역이 한계에 이른 말하자면 극한상황이다. 인도

(人道)와 공통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폭력과 잔인이 세기의 상징이 되어 인성을 파괴하는 비극임을 슬한 전쟁소설이 역설하는 것이다. 이들 많은 전쟁문학 작품 가운데 양차대전후의 대표적 소설을 들면 일차대전을 그린 《서부전선 이상 없다》와 이차대전을 그린 《젊은 사자들》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 <페마르크>에 의해 쓰여진 소설로서 18세 어린 나이에 중군한 <파울 보이머>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그림으로써 얼마나 허무한 기분을 자아내게 하는지... 전쟁이 끝난 1918년 어느 날 종전의 기쁨에 들뜬 전장에서 <보이머>는 어느 유탄에 쓸려지고 만다. 그러나 이날 상부로의 보고서엔 「전선 이상 무」라는 보고가 타전됨으로써 더욱 더 어린 <보이머>의 죽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개인과 전체의 모순이 빛은 어처구니 없는 비극으로서 전쟁만이 갖는 어쩔 수 없는 속성인 것이다. 1945년에 쓰여 <어린 쇼>의 《젊은사자들》 또한 전쟁이 얼마나 참다운 인간의 자유를, 단순한 집단의 의지로서 아니면 터무니없는 종파 때문에 말살시키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종전에 가까워 지리멸렬한 독일군의 한 장교 <크리스찬>은 전진(戰塵)에 지친 심신을 끌며 대열을 벗어나 자유스러움에 취한다. 군인으로서 그가 마지막 싸버린 의미없는 유탄에 귀향의 즐거움을 나누며 산책하던 두 미군 병사 가운데 <노아>가 맞아 쓰러진다. 그리고 친구 <휘데카>는 <크리스찬>을 죽이고... 이 너무도 허황되고 모순된 생존에 어느 누구도 가슴치며 애석해 않을 것인가?

전쟁은 정말 무의미하고 인간본성의 말살을 꾀하는 인류의 자살 행위인 것을 많은 문학작품이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전쟁을 겪고난 문학은 그 대부분 무의미한 인간의 죽음을 그려 인간 자유에의 항변을 외쳤던 것이다.

이외에도 명작속에 나타난 「죽음」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다.

단순한 자연사라 하더라도 주인공의 파란만장한 일생이 그의 죽음에 빛을 부여하여 「기록함」이 갖도록 하는 《레 미제라블》에서의 <잔발장>의 죽음, 자기가 믿는 대의를 위해 고집스럽게 죽어가는 《누구를 위해 좋은 울리나》의 <조오단>의 죽음, 가난한 시인의 고운 마음씨를 그린 《마지막 잎새》의

<벨만>노인의 죽음처럼 성직자와 같은 순교적 죽음, 그리고 《의사 지바고》에서의 <우리 지바고>의 죽음처럼, 차라리 시적이고 어쩌면 처절할 만큼 연민의 정을 금치 못하는 죽음들...

세계문학속의 죽음은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진실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이 갖는 진면목(眞面目)이요, 인간을 「적당히 정화」하려는 목적의 달성이기도 한 것이다.

「절대적」인 것에 귀의하려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어찌지 못하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무력은 끝 이를 미화하는 데 인색하지 않아도 좋을 여유를 갖게 한 것이다. 또한 죽음에 버금할 인간의 불행은 없다고 믿는 많은 사람의 동정적인면 때문에 문학속의 죽음이 미화되어 읽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민을 갖고 작품을 읽게되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그 보다 더 큰 불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신화 가운데 죽음은 「창조」적인 요소로서, 불안심의 승화로서 나타나는 죽음들은 그 악순환의 무의미성을, 여러가지 형태의 정사에서는 그것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나 하는 소위 그 「유형」에 대한 미해결의 유형을 그리고 속죄와 허무한 노력에도 용납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임」을 얘기하는 자학속의 죽음 등 어느 곳에서고 불행한 죽음을 피하려는 인간의 갈구가 더욱 고취되는 것이리라.

끝으로 필자는 여기서 사용한 「죽음」의 정의에 있어서 자신있는 인용이 되었으리라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우리의 현재의 삶은 죽음이고 몸동이는 무덤이다』라고 말한 <플라토>나 『몸동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을 말한 <피테>의 얘기가 심장의 정지를 말하는 「죽음」과 어떻게 일치 할 것이냐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죽음은 다분히 후자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러나 어느 것이 「즐거움」을 동반한 죽음에 관하여 얘기되고 있는 한 죽음이 주체일 수가 없으며 따라서 이들 명작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역지는 어쩔 수가 없지 않은가 고 자위해 본다.